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의 차이 연구*

조 용 주[†]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감을 측정함에 있어서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것과 부모가 보고하는 것 중 어느 측정 방법이 더 유용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공감척도를 부모가 보고하는 형식으로 수정한 부모공감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공감척도 부모용의 5요인 구조 적합도는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이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공감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자녀의 지각보다 공감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한 어머니들이 자녀의 지각과 차이를 적게 보이는 어머니들에 비하여 사회적 선회도¹⁾와 방어기제의 왜곡 요인의 점수가 높았고, 투사 요인에서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한편,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공감이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보다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부모의 공감을 측정함에 있어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공감을 측정하는 것이 부모가 보고하는 공감을 측정하는 것보다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공감,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 사회적 선회도, 방어기제, 자기애

* 본 연구는 조용주(2010)의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공감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에서 일부 발췌한 것임.

† 교신저자 : 조용주,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 2동 산 43-1,
Tel : 02-2164-4085, E-mail : yjj3141@hanmail.net

1) 사회적 선회도: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보이려고 함이 강한 것을 말한다.

많은 학자들은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공감적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Kohut(1977)은 자녀의 자기애적 욕구에 부모의 공감과 적절한 좌절이 주어질 때, 자녀의 거대자기와 이상화된 부모상은 변형적 내면화 과정을 거쳐 응집적인 자기의 두 축인 건강한 야망과 이상으로 형성된다고 하여 부모 공감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Rogers(1957)가 내담자 중심의 치료에서 공감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한 것을 부모-자녀 관계에 대입해 보면, 부모의 공감은 아동의 적절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도 아동의 입장과 심정을 이해해 줄 수 있어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수용을 가능하게 한다. 즉, 공감적인 부모는 예민하고 정서적으로 아동과 함께하여 심리적으로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Feshbach, 1987). 그러나 초기 공감적 보살핌의 부족은 아동의 정신병, 성격장애, 거짓자아 형성으로 이끄는 중요한 원인이 되며(Winnicott, 1965), 부모의 공감부족, 특히 어머니의 공감부족은 아동에게 자기와 타인상의 파편화를 일으켜 자아의 결핍을 가져올 수 있고(Kohut, 1971), 아동이 공허감과 무가치함을 가지고 자라서 중독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Kernberg, 1975).

실제로 부모의 공감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경험적 연구가 꾸준히 있었다. 부모의 공감은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친밀감(오진아, 2007), 아동의 이타행동(Zahn-Waxer, Radke-Yarrow, & King, 1979)과 아동의 순종, 자기-통제, 긍정적인 감정 표현, 학습(Feshbach, 1995)에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부모의 공감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 내현화 문제(문승미, 2006; Feshbach, 1987), 공격성, 부정적인 감정 표현(Feshbach, 1995)과는 부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부모의 공감은 자녀의 정서, 행동, 학습,

대인관계 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어머니의 공감과 딸의 공감은 관련(Barnett, King, Howard, & Dino, 1980)이 있으며, 부모의 낮은 공감은 아동 학대와 높은 상관(Letourneau, 1981)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시기에도 여전히 부모의 공감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공감은 자녀의 자기-존중감과 건강한 자기애와 관련이 있으며(Trumpeter, Watson, O'leary, & Weathington, 2008), 공감적인 아버지는 덜 권위적이고, 공감적인 어머니는 불안과 죄책감의 통제방법을 덜 사용하여 자녀의 정서표현을 격려(Strayer & Roberts, 200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의 부모-자녀 간 공감 전수에 있어서도 공감의 정서적인 요소는 부모-자녀 간 직접 전수되며, 인지적인 요소는 간접 전수(Soenens, Duriez, Vansteenkiste, & Goossens, 2007)된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자녀 간 갈등이 증폭되는 시기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도 줄어들기 쉬운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줄어드는 것은 청소년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덜 제공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생각을 경청하거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그들의 느낌과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부모는 기본적으로 공감적인 이해와 경청하는 귀, 그리고 자신도 중요하게 말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그런 부모라 하였다(Noble, Adams, & Openshaw, 1989, Rice & Dolgin, 2009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청소년 시기의 부모의 공감적 태도에 대한 연구는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효율적인 부모역할을 제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모 공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공감 능력을 측정할 때 대부분 자녀에 대한 공감 능력이 아닌 일반 관계에서의 공감을 측정하였다. 부모의 공감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일반 관계에서의 공감 척도를 사용하는 것은 실제 부모의 공감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할 수 있다. 부모-자녀 관계는 다른 일반 관계보다 더욱 밀착된 관계이며, 책임과 기대가 큰 관계이고, 얼마나 표현하는가에 따라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자녀 양육과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부모-자녀 관계에서 나타나는 공감의 특성을 반영한 부모공감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부모의 낮은 공감과 아동 학대와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에서, 부모의 공감을 Hogan Empathy Scale(HES; Hogan, 1969)과 Emotional Empathic Tendency Scale(EETC; Mehrabian & Epstein, 1972)로 측정한 Letourneau (1981)의 연구와 Parent/Partner Empathy Measure (PPEM; Feshbach & Caskey 1985)로 측정한 Feshbach(1987)의 연구에서는, 학대 경력이 있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하여 공감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IRI; Davis, 1980)를 사용한 연구들에서는 각 하위요인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즉 IRI척도를 사용한 5개의 연구(De Paul, Perez-Albeniz, Guibert, Asla, & Ormaechea, 2008, Milner, Halsey, & Fultz 1995; Perez-Albeniz & De Paul, 2003; 2004, Wiehe, 2003)를 비교해 보면, IRI척도 내 ‘개인적 고

통’ 요인에서는 5개의 연구 결과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관점수용’ 요인에서는 De Paul 등의 2008년 연구, Perez-Albeniz와 De Paul의 2004년 연구, Wiehe(2003)의 연구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공감적 관심’ 요인에서는 Perez-Albeniz와 De Paul(2003) 연구, Wiehe(2003)의 연구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아동 방치와 공감적 관심 요인이 유의하지 않다는 예상 밖의 결과(De Paul et al., 2008)는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일치되지 않은 결과에 대하여 학자들은 부모 공감의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일반관계에서의 공감이 아닌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공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며 (Feshbach & Caskey, 1985; Kilpatrick, 2005; Perez-Albeniz & De Paul, 2004), 부모에게 묻는 공감 질문지에 사회적 선회도 검사(De Paul & Perez-Albeniz, 2008; Kilpatrick, 2005)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연구자들은 부모가 자신의 태도를 좋게 보이려는 경향성을 제거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공감 척도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부모의 공감을 측정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모의 편향된 보고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공감척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선회도 검사를 추가하는 것보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공감을 측정하는 것이, 부모의 좋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경향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감 측정에 있어서 Barrett-Lennard(1981)는 공감이 타인에게 표현될 때 타인이 공감을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으며, Trumpeter 등(2007)도 부모의 공감을 측정함에 있어서 부모의 의도나 행동이 아닌 자녀가 지각한 공감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모 공감을

측정함에 있어서 부모가 보고하는 형식보다 자녀가 지각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부모의 사회적 선회도 경향을 제거할 수 있고 공감의 주관적 경험의 중요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부모의 공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공감을 측정하는 것이 많은 장점이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공감과 부모가 보고한 공감의 차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의 차이 연구를 위하여 먼저 부모공감척도 부모용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부모의 공감에 대하여 부모-자녀 간 지각 차이를 검증한 경험적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에 있어서 부모-자녀 간 지각 차이에 대한 연구를 보면, Siegelman(1965)의 연구와 Thomas, Gecas, Weigert, Rooney(1974)의 연구에서는 사회화 방식에 관한 부모와 자녀의 진술이 일반적으로 일치된다고 하였으나, Gecas, Schwalbe(1986)의 연구와 Buri(1989)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보고하는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간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감에 있어서 두 측정치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공감과 부모가 보고한 공감 측정치 간 차이가 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Harrington(1987), Kilpatrick(2005)은 부모가 자신의 반응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왜곡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부모의 낮은 공감과 아동 학대와의 관련을 검

증한 연구자들은, 부모의 사회적 선회도 경향을 의심하였다(De Paul et al., 2008; Kilpatrick, 2005). Jacob과 Tennenbaum(1988)은 동일 질문지로 가족에게 측정하였을 때 그 측정치에 많은 차이가 난다면, 인지발달의 수준, 인지양식, 방어유형, 대인관계의 의미에 있어서 예민성, 주의 깊게 설문에 임하는 동기, 문항의 해석 등과 같은 개인차 변인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자녀 간 공감 지각 차이가 많이 나는 집단과 차이가 적게 나는 집단 간, 어머니의 사회적 선회도와 방어기제 중 왜곡, 부정, 투사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검증 실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주제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공감과 부모가 보고한 공감 중 어느 것이 더 자녀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부모 공감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없지만, 부모가 직접 보고한 양육행동보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자기-가치감, 자기-존중감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Gecas & Schwalbe, 1986), 부모에게서 측정한 것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돌봄과 권위가 자녀의 자기-존중감과 더 밀접한 관계(Buri, 1989)가 있었다. 또한 Barnett 등(1980)은 자녀의 사회, 정서적 발달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사회화 방식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가장 중요한 정보라 하였고, 김성일(1996)과 Rohner, Pettengill(1985) 등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부모 자신의 보고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것이 자녀의 발달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과 부모가 보고한 공감 중 어느 측정 방법이 자녀의 발달을 잘 예견할 것인지를 알아보

기 위하여 부모 공감의 두 측정치와 자녀의 자기에와의 관련을 비교하고자 한다. 그것은 부모의 공감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의 자기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론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Kohut(1971, 1977)은 부모의 공감과 적절한 좌절은 자녀의 건강한 자기에 발달을 도우고, 부모의 지속적인 공감 실패는 자녀의 미숙한 자기 응집성, 자기표상의 파편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기의 붕괴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과대자기, 이상화된 부모상, 주목에 대한 요구, 자기애적인 분노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현재 자기에에 대한 연구는 표현 양상에 따라 내현적 자기에와 외현적 자기에로 구분하고 있다. 두 자기에 모두 타인지향성과 구분되며, 지루함과 관련이 있고, 착취적인 대인관계와 비판이나 비평에 민감하고 공감이 부족한 특성을 가진다(강선희, 정남운, 2002). 두 자기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외현적 자기에는 DSM에서 묘사된 자기애적 성격장애에 부합되는 웅대하고 과장된 자기표상과 자기 과시가 주된 특징으로 열등감과 우울, 소진감 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내현적 자기에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며 쉽게 상처받는 취약성을 가진다. 우울, 불안, 타인의 반응에 과민한 모습이며 대개 위축되고 수줍어하며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불편해 한다(정남운, 2001a). 이와 같이 외현적 자기에는 방어적인 자기고양을 통하여 취약한 자기개념을 방어할 수 있어 비교적 삶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내현적 자기에는 부정적인 자기평가로 열등감, 자기의심, 비판에 대한 민감성으로 주관적 불편감을 더 많이 겪는다(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즉 자녀의 내현적 자기에는 병리적이고 부적응적인 면이 더욱 드러나며

외현적 자기에는 취약한 자기개념을 방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부모의 공감은 자녀의 내현적 자기에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외현적 자기에와는 약한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공감척도 부모용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다.

연구문제 2.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연구문제 3. 어머니-자녀 간 공감 지각 차이가 많이 나는 집단과 차이가 적게 나는 집단 간 어머니의 사회적 선회도와 방어기제의 차이 검증을 실시한다.

연구문제 4.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자녀의 자기에의 상관을 구하고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과 자녀의 자기에 상관을 구하여 비교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의 차이가 일반학교 집단과 내담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의 표본을 구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의 중학교 4개교와 고등학교 4개교의 학생 628명과 그들의 어머니, 청소년 상담소 15곳과 정신과 병원 3곳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던

표 1. 청소년의 일반 집단과 내담자 집단, 학력별, 성별 분포

| | 일반 학교 집단 (n=498) | | 내담자 집단 (n=116) | | 합계 |
|------|---------------------|----------|-------------------|---------|------|
| | 남(n=97) | 여(n=152) | 남(n=36) | 여(n=33) | |
| 중학생 | | | | | 318쌍 |
| 고등학생 | 남(n=115) | 여(n=134) | 남(n=21) | 여(n=25) | 295쌍 |
| 미확인 | | | 남(n=1) | | 1쌍 |
| 합계 | 212쌍 | 286쌍 | 58쌍 | 58쌍 | 614쌍 |

청소년 내담자 137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체 수거된 765쌍의 설문지 중, 한부모의 자료와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일반 청소년과 어머니 498쌍, 청소년 내담자와 어머니 116쌍으로 전체 614쌍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의 실시는 2009년 7월~8월에 이루어졌으며 청소년의 학력별, 성별, 일반 집단과 내담자 집단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 어머니의 연령분포는 30~39세 68명, 40~49세 486명, 50~59세 51명, 미확인 9명이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이하 19명, 고졸 292명, 전문대졸 73명, 대졸 187명, 대학원졸 32명, 미확인 11명이었다.

측정도구

청소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공감척도. 조용주(2010)가 개발한 척도로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공감을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 대하여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척도는 정서지각, 관점수용, 공감적 정서반응, 냉담한 정서반응, 과민 정서반응의 5요인 25문항이다. 정서지각은 부모가 자녀의 정서나 상태에 대하여 알아차리는 정도를 나타내며, 관점수용은 자녀의 기

분이나 입장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에 관한 문항이다. 공감적 정서반응은 자녀의 정서를 공유하고 자녀에게 따뜻한 관심과 염려의 정서반응을 보이는 것이며, 냉담한 정서반응은 자녀의 정서에 반응하지 않거나 자녀의 입장과 정서를 무시하는 것이며, 과민 정서반응은 자녀의 기분과 상태에 대하여 부모가 더 과도하게 정서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서지각의 경우 “내 표정만 보고도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아시는 것 같다.”, 관점수용은 “내가 시험이 끝난 다음 친구들과 노는 것을 이해해 주신다.”, 공감적 정서반응은 “내가 잘 한 일에 대해 칭찬해 주신다.”, 냉담한 정서반응은 “내 기분은 고려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신다.”, 과민 정서반응은 “걱정되는 일을 말씀드리면 아버지(또는 어머니)께서 더 많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조용주(2010)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신뢰도는 각 요인별로 아버지 어머니 각각 정서지각 .81과 .80, 관점수용 .74와 .78, 공감적 정서반응 .81과 .74, 냉담한 정서반응 .76과 .71, 과민 정서반응 .59와 .5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각 .80과 .78, 관점수용 .77과

.75, 공감적 정서반응 .81과 .79, 냉담한 정서반응 .78과 .76, 과민 정서반응 .53과 .54 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에 척도(CNS).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에적 임상적 특성을 내용영역으로 하여, 강선희, 정남운(2002)이 기존의 자기에 측정도구에서 적절한 문항을 가져오거나 새로운 문항을 만들어 개발한 척도이다. 총 45 문항의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은 내현적 자기에와 외현적 자기에의 공유하는 특성이며,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은 내현적 자기에만의 특성으로 보고하였다. 목표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부족의 5요인 신뢰도는 각각 .89, .82, .74, .80, .77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88, .82, .80, .84, .79이었다.

외현적 자기에 척도(NPI). NPI는 Raskin과 Hall(1979, 1981)이 DSM-III의 자기에적 성격장애 진단준거를 근거로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총 54문항의 자기에 측정도구이다. 이후 Raskin과 Terry(1988)가 주성분 분석으로 40 문항 단축형을 발표하였고, 정남운(2001b)이 공통요인분석으로 32문항으로 단축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강제선택형의 이분법적 검사도구로 하위요인은 리더십/자신감, 권력욕구/특권의식, 과시/칭찬욕구, 우월의식의 4요인이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70, .73, .68, .65 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0, .72, .67, .66 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부모공감척도 부모용. 조용주(2010)가 개

발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공감척도의 각 문항을 본 연구에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공감을 보고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공감척도 자녀용 1번 문항의 “내 표정만 보고도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아시는 것 같다.”는 “아이의 표정만 보고도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로, 9번 문항의 “내가 시험을 못 쳤다고 하면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신다.”는 “아이가 시험을 못 쳤다고 하면 나는 이유를 물어보기 전에 화부터 내게 된다.”로 수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공감척도의 25문항을 부모가 자녀에 대한 공감을 보고할 수 있도록 모두 수정한 후, 심리학 박사과정생 5명에게 자녀용과 부모용의 각 문항을 비교하여 문장의 의미가 동일한지, 문장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받아 문장을 수정한 후 부모공감척도 부모용의 25문항을 확정하고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공감척도 부모용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공감척도와 마찬가지로 5요인 25문항 4점 리커트 척도이다.

이화방어기제검사. 이근후, 김재은, 김정규, 박영숙(1991)이 개발한 이화방어기제검사는 20개의 하위척도에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20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미성숙한 방어기제인 자아도취단계의 투사, 부정, 왜곡 3개의 요인에 각 10문항씩 30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가 미성숙한 방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자녀의 지각보다 어머니 자신이 공감을 더 잘 한다고 보고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형 척도로 역문항 없이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특성이 강함

을 나타낸다. 이근후 등(1991)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69, .69, .66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76, .60, .74이다.

사회적 선회도 척도. Crowne과 Marlowe (1960)의 사회적 선회도 척도를 단축형으로 구성한 이주일(1988)의 13문항 사회적 선회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예/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보이고자 함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 역문항은 1, 2, 3, 4, 6, 8, 11, 12번 문항이다. 이주일(1988)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7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65였다.

절차

청소년

학교 집단에서의 설문 실시는 수업시간에 단체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상담소와 병원에서는 청소년 내담자가 상담을 받고 난 다음 또는 가정에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어머니

학교 집단의 어머니에게 실시하는 질문지는 봉투에 넣어 학생을 통하여 가정에 보내 어머니가 질문지를 작성한 후 봉투에 담아 봉한 다음 학생이 학교에 가져오게 하였고, 상담소와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상담소나 병원에 내방한 경우는 자녀가 상담을 받는 동안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어머니가 상담소나 병원에 오지 않은 경우는 학교 집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결 과

부모공감척도 부모용의 확인적 요인분석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공감과 부모가 보고하는 공감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공감척도(조용주, 2010)를 부모가 보고하는 형식으로 수정한 부모공감척도 부모용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공감척도의 부모용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기 위하여 AMOS 7.0 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절차는 홍세희(2000), 이순목(2000) 등의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부모공감척도 부모용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얻어진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평가방법에는 χ^2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χ^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여 표본 크기가 조금만 증가해도 모형이 적합하다는 영가설 기각이 매우 쉽게 일어난다. 따라서 χ^2 검증은 보고는 하나 해석은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홍세희, 2000). 이러한 χ^2 통계치의 한계를 교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이 좋은 적합도의 기준인 .0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CFI값이 .88, TLI 값은 .90으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그러므로 부모가 보고하는 공감을 측정하기 위한 부모공감척도 부모용은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공감척도 부모용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항의 경로계수들은 모두 0.4이상으로

표 2. 부모공감척도 부모용의 확인적 요인분석 전반적 적합도 지수

| 적합도 지수 | χ^2 | df | p | CFI | TLI | RMSEA |
|--------|----------|-----|------|------|------|-------|
| 어머니 보고 | 899.403 | 265 | .000 | .880 | .901 | .053 |

표 3. 부모공감척도 부모용의 변수 간 경로계수

| 변수 간 경로 | 비표준화 계수 | 표준화 계수 | S.E. | t |
|---------------|---------|--------|--------------|-----------|
| 정서지각 → F1 | 1 | 0.631 | | |
| F12 | 0.522 | 0.370 | 0.068 | 7.646*** |
| F17 | 0.932 | 0.675 | 0.075 | 12.402*** |
| F22 | 0.897 | 0.606 | 0.078 | 11.517*** |
| F25 | 0.913 | 0.656 | 0.075 | 12.177*** |
| | | | $\alpha=.71$ | |
| 관점수용 → F2 | 1 | 0.538 | | |
| F9 | 1.105 | 0.657 | 0.101 | 10.953*** |
| F21 | 1.177 | 0.625 | 0.110 | 10.655*** |
| F18 | 0.828 | 0.458 | 0.096 | 8.669*** |
| F13 | 0.981 | 0.576 | 0.097 | 10.148*** |
| | | | $\alpha=.68$ | |
| 공감적 정서반응 → F3 | 1 | 0.487 | | |
| F7 | 1.329 | 0.641 | 0.131 | 10.173*** |
| F10 | 1.485 | 0.620 | 0.149 | 10.000*** |
| F14 | 1.179 | 0.516 | 0.131 | 9.024*** |
| F24 | 1.211 | 0.543 | 0.130 | 9.299*** |
| | | | $\alpha=.69$ | |
| 냉담한 정서반응 → F4 | 1 | 0.595 | | |
| F6 | 0.804 | 0.554 | 0.079 | 10.225*** |
| F19 | 0.904 | 0.522 | 0.092 | 9.799*** |
| F23 | 1.269 | 0.682 | 0.109 | 11.648*** |
| F16 | 0.590 | 0.415 | 0.072 | 8.180*** |
| | | | $\alpha=.71$ | |
| 과민 정서반응 → F5 | 1 | 0.693 | | |
| F8 | 0.544 | 0.337 | 0.077 | 7.048*** |
| F11 | 0.692 | 0.548 | 0.063 | 10.915*** |
| F15 | 0.875 | 0.612 | 0.074 | 11.897*** |
| F20 | 0.965 | 0.660 | 0.077 | 12.527*** |
| | | | $\alpha=.69$ | |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신뢰도 계수는 0.69~0.71을 보였다.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의 차이 검증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의 차이 검증을 위하여, 조용주(2010)가 개발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공감척도와 부모공감척도 부모용을 청소년 자녀와 그의 어머니에게 각각 실시하여,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이러한 어머니-자녀 간의 공감 지각 차이가 청소년 일반 집단과 청소년 내담자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 일반 집단의 자녀가 지각한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의 차이 및 청소년 내담자 집단의 자녀가 지각한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의 차이에 대하여 각각 SPSS 16.0을 활용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자녀 간 공감 지각 차이를 검증하기 전에, 먼저 자녀가 지각한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 간 상관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자녀가 지각한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 간 정서지각, 관점수용, 공감적 정서반응, 냉담한 정서반응, 과민 정서반응의 각 요인에 상관($r = .13 \sim .41$)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의 각 요인 간 상관이 있음을 알고, 이번에는 부모 공감의 각 요인에 있어서 자녀가 지각한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 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집단에서 어머니-자녀 간 공감 지각 차이는 정서지각($t = -5.85, p < .01$), 관점수용($t = -2.97, p < .01$), 공감적 정서반응($t = -5.38, p < .01$), 과민 정서반응($t = -15.54, p < .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어머니-자녀 간 공감 지각 차이가 청소년 일반 집단과 청소년 내담자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각각의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전에 먼저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感到 있어서 일반 집단과 내담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6에 보는 바와 같이 정서지각($t = 4.56, p < .01$), 관점 수용($t = 2.40, p < .05$), 공감적 정서반응($t = 3.65, p < .01$)에 있어서 일반 집단의

표 4.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의 요인 간 상관 분석

| | 자녀지각 정서지각 | 자녀지각 관점수용 | 자녀지각 공감적 정서반응 | 자녀지각 냉담한 정서반응 | 자녀지각 과민정서반응 |
|------------|--------------|--------------|---------------|---------------|--------------|
| 모보고 정서지각 | .33** | .11** | .23** | -.18** | .00 |
| 모보고 관점수용 | .21** | .41** | .28** | -.29** | -.07 |
| 모보고 공감적 반응 | .23** | .18** | .27** | -.23** | .02 |
| 모보고 냉담한 반응 | -.26** | -.19** | -.25** | .32** | .03 |
| 모보고 과민반응 | .07 | -.07 | .07 | -.01 | .13** |

** $p < .01$

표 5. 전체집단의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 간 차이 검증

| 종속변수 | 집단 | n | 평균(SD) | 평균차이 | t | |
|----------|----|-----|--------|-------------|-------|----------|
| 정서지각 | 전체 | 청소년 | 614 | 14.02(2.77) | -.80 | -5.85** |
| | | 어머니 | 614 | 14.82(1.92) | | |
| 관점수용 | 전체 | 청소년 | 614 | 13.98(3.09) | -.44 | -2.97** |
| | | 어머니 | 614 | 14.42(2.02) | | |
| 공감적 정서반응 | 전체 | 청소년 | 614 | 15.60(2.51) | -.66 | -5.38** |
| | | 어머니 | 614 | 16.26(1.73) | | |
| 냉담한 정서반응 | 전체 | 청소년 | 614 | 11.39(2.89) | .22 | 1.59 |
| | | 어머니 | 614 | 11.16(2.03) | | |
| 과민정서반응 | 전체 | 청소년 | 614 | 12.80(2.50) | -2.09 | -15.54** |
| | | 어머니 | 614 | 14.90(2.20) | | |

** $p < .01$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이 내담자 집단의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보다 높았고 냉정한 정서반응($t = -4.16, p < .01$), 과민 정서반응($t = -2.33, p < .05$)에서는 낮았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을 알고, 이번에는 청소년 일반 집단과 청소년 내담자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어머니-자녀 간 공감 지각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7에서

표 6.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에 있어서 청소년 일반 집단과 내담자 집단의 차이 분석

| | 집단 | n | 평균(SD) | 평균차이 | t |
|----------|-----|-----|-------------|-------|---------|
| 정서지각 | 일반 | 498 | 14.26(2.73) | 1.28 | 4.56** |
| | 내담자 | 116 | 12.97(2.74) | | |
| 관점수용 | 일반 | 498 | 14.12(3.10) | 0.76 | 2.40* |
| | 내담자 | 116 | 13.36(2.97) | | |
| 공감적 정서반응 | 일반 | 498 | 15.77(2.48) | 0.93 | 3.65** |
| | 내담자 | 116 | 14.83(2.50) | | |
| 냉담한 정서반응 | 일반 | 498 | 11.15(2.91) | -1.22 | -4.16** |
| | 내담자 | 116 | 12.38(2.63) | | |
| 과민정서반응 | 일반 | 498 | 12.68(2.45) | -0.60 | -2.33* |
| | 내담자 | 116 | 13.28(2.67) | | |

* $p < .05$, ** $p < .01$

표 7. 일반 집단과 내담자 집단의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 간 차이 검증

| 종속변수 | 집단 | | n | 평균(SD) | 평균차이 | t |
|----------|-----|-----|-----|-------------|-------|----------|
| 정서지각 | 일반 | 청소년 | 498 | 14.26(2.72) | -.67 | -4.51** |
| | | 어머니 | 498 | 14.94(1.89) | | |
| | 내담자 | 청소년 | 116 | 13.08(2.78) | -1.23 | -3.95** |
| | | 어머니 | 116 | 14.32(1.96) | | |
| 관점수용 | 일반 | 청소년 | 498 | 14.13(3.12) | -.35 | -2.13* |
| | | 어머니 | 498 | 14.49(2.05) | | |
| | 내담자 | 청소년 | 116 | 13.40(2.91) | -.75 | -2.36* |
| | | 어머니 | 116 | 14.15(1.86) | | |
| 공감적 정서반응 | 일반 | 청소년 | 498 | 15.78(2.49) | -.59 | -4.30** |
| | | 어머니 | 498 | 16.37(1.74) | | |
| | 내담자 | 청소년 | 116 | 14.87(2.46) | -.90 | -3.33** |
| | | 어머니 | 116 | 15.78(1.61) | | |
| 냉담한 정서반응 | 일반 | 청소년 | 498 | 11.16(2.92) | .14 | .91 |
| | | 어머니 | 498 | 11.01(2.04) | | |
| | 내담자 | 청소년 | 116 | 12.30(2.62) | .48 | 1.63 |
| | | 어머니 | 116 | 11.82(1.86) | | |
| 과민정서반응 | 일반 | 청소년 | 498 | 12.69(2.45) | -2.15 | -14.45** |
| | | 어머니 | 498 | 14.84(2.19) | | |
| | 내담자 | 청소년 | 116 | 13.21(2.64) | -1.91 | -6.09** |
| | | 어머니 | 116 | 15.12(2.23) | | |

* $p < .05$, ** $p < .01$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자녀 간 지각 차이에 있어서 청소년 일반 집단과 청소년 내담자 집단은 각 요인에서 비슷한 양상의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자녀 간 공감 차이가 큰 집단과 작은 집단 간 어머니의 사회적 선회도와 방어기제의 차이 검증

다음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지각보다 공감을 더 잘 한다고 보고한 집단과 어머니-자녀 간

공감 지각 차이가 작게 나는 집단 간, 어머니의 사회적 선회도와 방어기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먼저 부모공감척도의 각 요인에서 어머니와 자녀의 공감 차이 점수로 집단을 분류하였다. 즉 어머니와 자녀의 공감 차이점수의 표준편차를 구하여 표준편차 -1 이하는 자녀가 어머니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보고한 집단, -1에서 +1 사이에 있는 집단은 어머니-자녀 간 공감

차이가 작은 집단, +1 이상은 어머니가 높은 공감을 보고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의 지각보다 어머니가 공감을 더 잘 한다고 보고한 집단과 어머니-자녀 간 공감 지각 차이를 작게 보이는 집단 간, 어머니의 사회적 선회도와 방어기제에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 집단 중 어머니가 자녀의 지각보다 공감을 잘 한다

표 8. 집단 간 어머니의 사회적 선회도와 방어기제의 차이 검증

| 종속변인 | 하위요인 | 집단 | n | 평균(SD) | 평균차이 | t |
|------|----------|-------|-----|-------------|-------|---------|
| 선회도 | 정서지각 | 모 고집단 | 89 | 8.25(2.68) | 0.72 | 2.32* |
| | | 동등집단 | 450 | 7.52(2.68) | | |
| | 관점수용 | 모 고집단 | 84 | 8.65(2.47) | 1.13 | 3.63*** |
| | | 동등집단 | 439 | 7.52(2.66) | | |
| | 냉담한 정서반응 | 모 저집단 | 75 | 8.47(2.70) | 0.81 | 2.42* |
| | | 동등집단 | 430 | 7.65(2.58) | | |
| 투사 | 정서지각 | 모 고집단 | 89 | 21.40(5.56) | -0.69 | -1.13 |
| | | 동등집단 | 450 | 21.10(5.16) | | |
| | 관점수용 | 모 고집단 | 84 | 20.57(4.87) | -1.44 | -2.41* |
| | | 동등집단 | 439 | 22.02(5.06) | | |
| | 냉담한 정서반응 | 모 저집단 | 75 | 20.44(5.22) | -1.54 | -2.44* |
| | | 동등집단 | 430 | 21.99(5.02) | | |
| 부정 | 정서지각 | 모 고집단 | 89 | 27.66(4.53) | 1.00 | 1.90 |
| | | 동등집단 | 450 | 26.65(4.56) | | |
| | 관점수용 | 모 고집단 | 84 | 26.25(4.39) | -0.55 | -1.04 |
| | | 동등집단 | 439 | 26.81(4.46) | | |
| | 냉담한 정서반응 | 모 저집단 | 75 | 26.54(5.97) | -0.20 | -0.35 |
| | | 동등집단 | 430 | 26.75(4.34) | | |
| 왜곡 | 정서지각 | 모 고집단 | 89 | 28.11(5.54) | 1.33 | 2.17* |
| | | 동등집단 | 450 | 26.78(5.21) | | |
| | 관점수용 | 모 고집단 | 84 | 27.18(5.70) | 0.36 | 0.58 |
| | | 동등집단 | 439 | 26.82(5.06) | | |
| | 냉담한 정서반응 | 모 저집단 | 75 | 27.75(5.94) | 1.03 | 1.58 |
| | | 동등집단 | 430 | 26.71(5.02) | | |

* $p < .05$, *** $p < .001$

고 보고한 집단과 차이가 작게 나는 집단만을 비교하였다. 정서지각, 관점수용, 공감적 정서 반응은 어머니가 높게 보고한 것이 어머니가 공감을 더 잘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표준편차 +1이상의 집단과 표준편차 -1에서 +1 사이의 집단을 비교하였고, 냉담한 정서반응과 과민 정서반응은 어머니가 낮게 보고한 것이 어머니가 공감을 더 잘 하는 것이라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표준편차 -1이하인 집단과 표준편차 -1에서 +1 사이의 집단을 비교하였다. 각 요인에 있어서 집단 간 어머니의 사회적 선회도와 방어유형 중 왜곡, 부정, 투사에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서지각 요인에 있어서, 자녀의 지각보다 어머니가 더 높은 점수를 보고한 집단의 어머니들은 표준편차 -1에서 +1사이의 동등집단의 어머니들보다 사회적 선회도($t=2.32, p<.05$)와 방어기제의 왜곡($t=2.17, p<.05$)요인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관점수용 요인에 있어서는 자녀의 지각보다 어머니가 관점수용을 더 잘 한다고 보고한 집단의 어머니들과 동등집단의 어머니들 간에는 사회적 선회도($t=3.63, p<.001$)와 투사($t=-2.41, p<.05$)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냉담한 정서반응 요인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지각보다 낮은 점수를 보고한 집단과 동등집단 간 어머니의 사회적 선회도($t=2.42, p<.05$)와 방어기제의 투사($t=-2.44, p<.05$)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자녀의 자기애와의 상관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과 자녀의 자기애와의 상관의 비교

이번에는 부모의 공감을 측정함에 있어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공감을 측정하는 것과 부모가 보고한 공감을 측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공감 측정치와 자녀의 자기애와의 상관을 비교하였다. 즉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자녀의 자기애와의 상관을 알아보고,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과 자녀의 자기애와의 상관을 구하여 두 상관계수를 비교하였다. 두 상관계수의 차이가 유의한 수준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Fisher의 Z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에서 상관계수 차이를 검증하고, 다음으로 자녀의 외현적 자기애에서 상관계수 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의 정서지각, 관점수용, 공감적 정서 반응은 자녀의 목표불안정,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부족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r=-.10\sim-.28$), 어머니의 냉담한 정서반응과 과민 정서반응은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 모든 요인과 정적 상관($r=.08\sim.30$)을 보였다.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의 정서지각, 관점수용, 공감적 정서반응도 자녀의 목표불안정,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부족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r=-.08\sim-.15$), 냉담한 정서반응은 자녀의 목표불안정,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과 정적 상관($r=.12\sim.15$)을 보였다. 한편 과민 정서반응은 내현적 자기애 모든 요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p>.05$).

자녀가 지각한 공감과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의 상관계수와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과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의 상관계수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상관계수 간 Fisher의 Z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지각과 목표불안정($r=2.37, p<.01$), 과민/취약성($r=1.87, p<.05$)과 관련에서, 공감적 정서반응

표 9.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의 상관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과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의 상관의 비교

| | | 목표 불안정 | 인정욕구/ 거대자기환상 | 착취/ 자기중심성 | 과민/ 취약성 | 소심/ 자신감부족 |
|-------------|------------|-----------|-----------------|--------------|------------|--------------|
| 정서지각 | 자녀지각 | -.24** | .06 | -.10* | -.17** | -.14** |
| | 어머니보고 | -.11** | .07 | -.08* | -.07 | -.08* |
| | Fisher's z | 2.37** | -0.06 | 0.29 | 1.87* | 1.06 |
| 관점수용 | 자녀지각 | -.21** | .02 | -.13** | -.16** | -.11* |
| | 어머니보고 | -.15** | -.02 | -.14** | -.09* | -.08* |
| | Fisher's z | 1.11 | 0.01 | -0.22 | 1.12 | 0.58 |
| 공감적 정서반응 | 자녀지각 | -.28** | .05 | -.17** | -.19** | -.16** |
| | 어머니보고 | -.15** | .000 | -.11** | -.13** | -.11** |
| | Fisher's z | 2.24* | 0.90 | 1.05 | 1.19 | 0.91 |
| 냉담한 정서반응 | 자녀지각 | .26** | .08* | .24** | .30** | .20** |
| | 어머니보고 | .12** | .06 | .16** | .15** | .06 |
| | Fisher's z | 2.58** | 0.43 | 1.44 | 2.79** | 2.45** |
| 과민 정서반응 | 자녀지각 | .16** | .17** | .14** | .20** | .17** |
| | 어머니보고 | -.04 | .04 | -.02 | -.005 | -.04 |
| | Fisher's z | 2.16* | 2.37** | 2.20* | 3.52*** | 2.29* |

* $p < .05$, ** $p < .01$, *** $p < .001$

과 목표불안정($r=2.24,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냉담한 정서반응에서는 목표불안정($r=2.24, p<.01$), 과민/취약성($r=2.79, p<.01$), 소심/자신감부족($r=2.45, p<.05$)과의 관련에서, 과민 정서반응에서는 목표불안정($r= 2.16, p<.05$),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r= 2.37, p<.01$), 착취/자기중심성($r=2.20, p<.05$), 과민/취약성($r=3.52, p<.001$), 소심/자신감부족($r= 2.29,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자녀의 외현적 자기애와의 상관을 구하고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과 자녀의 외현적 자기애와

의 상관을 구하여, 두 상관계수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여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정서지각과 공감적 정서반응은 자녀의 리더쉽/자신감, 권력욕구/특권의식, 과시/칭찬욕구, 우월의식과 정적 상관($r=.10\sim.15$)을 보였고, 관점수용은 우월의식에만 정적 상관($r=.11, p<.01$)을 보였다. 냉담한 정서반응은 자녀의 외현적 자기애의 모든 요인에 상관이 없었으며($p>.05$), 과민 정서반응은 리더쉽/자신감에 부적 상관($r=-.08, p<.05$), 권력욕구/특권의식에는 정적 상관($r=.10,$

표 10.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자녀의 외현적 자기애와의 상관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과 자녀의 외현적 자기애와의 상관의 비교

| | | 리더쉽/자신감 | 권력욕구/특권의식 | 과시/칭찬욕구 | 우월의식 |
|----------|------------|---------|-----------|---------|-------|
| 정서지각 | 자녀지각 | .10** | .11** | .10** | .10* |
| | 어머니보고 | .11** | .06 | .01 | .05 |
| | Fisher's z | -0.22 | 0.79 | 1.63 | 0.77 |
| 관점수용 | 자녀지각 | .01 | .03 | .07 | .11** |
| | 어머니보고 | .01 | -.02 | -.02 | .10* |
| | Fisher's z | 0.03 | 0.06 | 0.70 | 0.16 |
| 공감적 정서반응 | 자녀지각 | .10* | .07 | .13** | .15** |
| | 어머니보고 | .08* | .04 | .04 | .10** |
| | Fisher's z | 0.28 | 0.65 | 1.63 | 0.77 |
| 냉담한 정서반응 | 자녀지각 | -.06 | -.03 | -.06 | -.07 |
| | 어머니보고 | -.06 | .04 | .06 | -.08* |
| | Fisher's z | -0.03 | -0.32 | 0.16 | -0.15 |
| 과민 정서반응 | 자녀지각 | -.08* | .10* | .009 | .03 |
| | 어머니보고 | .07 | .07 | .02 | .05 |
| | Fisher's z | 0.19 | 0.39 | -0.33 | -0.28 |

* $p < .05$, ** $p < .01$

$p < .05$)을 보였다. 이에 비하여 어머니가 보고한 정서지각은 자녀의 리더쉽/자신감($r = .11$, $p < .01$)에, 관점수용은 우월의식($r = .10$, $p < .05$)에, 공감적 정서반응은 리더쉽/자신감($r = .08$, $p < .05$), 우월의식($r = .10$, $p < .01$)에 정적 상관을 보였고, 냉담한 정서반응은 우월의식($r = -.08$, $p < .05$)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자녀가 지각한 공감과 자녀의 외현적 자기애와의 상관계수를 구하고,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과 자녀의 외현적 자기애와의 상관계수를 구하여 두 상관계수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isher의 Z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

녀가 지각한 공감과 자녀의 외현적 자기애와의 상관계수와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과 자녀의 외현적 자기애와의 상관계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감을 측정할 때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공감을 측정하는 것과 부모가 보고하는 공감을 측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용한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공감척도를

부모용으로 수정하여 심리학 전공자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 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 어머니-자녀 간 공감 지각 차이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 간 차이가 큰 집단과 적은 집단 간 어머니의 방어기제와 사회적 선회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또한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 중 어느 것이 더 자녀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자녀의 자기애와의 상관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과 자녀의 자기애와의 상관을 각각 구하여, 두 상관계수 간 차이가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공감척도를 부모가 보고하는 형식으로 수정한 부모용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의 정서지각, 관점수용, 공감적 정서반응, 냉담한 정서반응, 과민 정서반응의 5요인 구조 적합도는 CFI .88, TLI .90, RMSEA .05로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둘째, 부모공감척도의 자녀용과 부모용을 이용하여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냉담한 정서반응을 제외한 정서지각, 관점수용, 공감적 정서반응, 과민 정서반응의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서지각, 관점수용, 공감적 정서반응, 과민 정서반응에 있어서 어머니가 보고한 점수가 자녀가 지각한 점수보다 모두 높았고, 비록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냉담한 정서반응에서는 반대로 자녀의 지각이 어머니의 보고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Paulson과 Sputa(1996)의 연구에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있어서 자녀가 지각하는 것보다 부모가 보고하는 것이 더 높은 점수를 보인 것과 유사하며, Hartos와 Power(1997)가 어머니들이 자녀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일반적으로 과소평가 한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는 공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녀들은 어머니가 보고하는 것보다 어머니는 공감을 적게 한다고 지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시기의 자녀들은 대체로 어머니가 보고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덜 예민하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며, 정서적으로 함께하는 정도도 낮고 더 냉정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특히 과민 정서반응에서의 차이는,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식이 세상을 잘 모르고 무모하며 사고를 당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 경향(Ricc & Dolgin, 2009)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어머니-자녀 간 공감의 지각 차이가 청소년 일반 집단과 청소년 내담자 집단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에 대하여 각각 어머니-자녀 간 공감의 지각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두 집단에서 모두 정서지각, 관점수용, 공감적 정서반응, 과민 정서반응에 있어서, 어머니가 보고한 점수가 자녀가 지각한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자녀 간 공감의 지각 차이는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현상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셋째, 어머니-자녀 간 공감의 지각 차이가 나는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의 지각보다 어머니가 공감을 더 잘한다고 보고한 집단과 어머니-자녀 간 공감 지각 차이가 적게 나

는 집단 간, 어머니의 사회적 선회도와 방어기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정서지각, 관점수용, 냉담한 정서반응에서 자녀의 지각보다 더 공감적이라고 보고한 어머니들의 사회적 선회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특히 관점수용에서는 $p < .001$ 수준으로 높았다. 이는 자녀의 지각보다 공감 점수를 높게 보고한 어머니들이 사회적으로 좋게 보이려는 경향성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관점수용에서의 어머니-자녀 간 공감 지각 차이의 배경은 어머니의 높은 사회적 선회도의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낮은 공감과 확대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학자들이(De Paul et al., 2008; Kilpatrick, 2005), 부모의 공감을 측정할 때 부모의 사회적 선회도 경향을 지적한 것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녀의 지각보다 어머니 자신이 자녀의 기분을 더 잘 알아차린다고 보고한 집단의 어머니들은, 방어기제의 왜곡 요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것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기분을 지각함에 있어서 자녀와 차이를 많이 보이는 배경에 어머니의 왜곡된 사고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녀의 지각보다 관점수용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한 어머니들과 덜 냉담하다고 보고한 어머니들의 투사 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방어기제에서 투사는 부인하고 싶은 감정이나 소망, 태도, 성격 특징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투사기제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무의식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되고 편견, 부당한 의심이나 경계, 오해 그리고 남에게로의 책임전가, 현실왜곡이 나타나게 된다(박영숙, 1994). 이러한 투사의 특징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자녀의 지각보다 공감을 잘한다고 보고한 어머니들이 투사기제를 많이 사용하리라는 가정을 하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자녀의 지각보다 공감을 잘 한다고 보고한 어머니들의 투사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자녀의 지각보다 공감을 잘 한다고 보고한 어머니들이 투사의 방어기제를 실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인 방어에 의하여 자신의 투사기제 사용을 자각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녀의 지각보다 공감을 잘 한다고 보고한 어머니들이 사회적 선회도 경향이 높고 방어기제의 왜곡 경향을 같이 보이면서 투사 점수가 낮은 것은, 타인의 반응이나 비난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염려로 인해 무의식적인 방어를 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의 자녀의 내현적 자기에 및 외현적 자기애와의 상관을 비교함으로써, 어느 측정 방법이 더 자녀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의 상관을 구하고,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과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의 상관을 구하여 두 상관관계수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의 상관관계수가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과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와의 상관관계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두 상관관계수 간 정서지각과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공감적 정서반응과 목표불안정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냉담한 정서반응에서는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부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과민

정서반응에서는 목표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부족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의 전요인과 과민 정서반응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반면,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의 모든 요인과 과민 정서반응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과민 정서반응은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 중 부정적인 요인인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홍영미(2007)의 연구에서 부모의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은 자녀의 내현적 자기에 전체에 정적방향으로 8%의 설명력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으므로, 어머니의 과민 정서반응과 자녀의 내현적 자기에와의 정적 상관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이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보다 자녀의 내현적 자기에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자녀가 지각한 것이 부모가 보고한 것보다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김성일, 1996; Rohner & Pettengill, 1985)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며, Gecas와 Schwalbe(1986)의 연구, Buri(1989)의 연구 결과와 그 맥이 같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자녀의 외현적 자기에와의 상관을 구하고,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과 자녀의 외현적 자기에와의 상관을 구하여 두 상관계수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자녀의 외현적 자기에와의 상관계수가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과 자녀의 외현적 자기에와의 상관계수보다 좀 더 높게 나왔지만, 두 상관계수의 차이가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공감과 자녀의 외현적 자기에의 상관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두 공감 측정치와 자녀의 외현적 자기에와의 상관 차이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감을 측정함에 있어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공감을 측정하는 것과 부모가 보고하는 공감을 측정하는 것 중 어느 측정 방법이 더 유용한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모공감척도 부모용의 적합도가 양호하게 나왔고,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과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자녀 간 공감 지각 차이 점수로 집단을 나누어 어머니들의 사회적 선회도와 방어기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녀의 지각보다 어머니가 공감을 더 잘 한다고 보고한 집단의 어머니들은 어머니-자녀 간 공감 지각 차이가 적은 집단의 어머니들에 비하여 사회적 선회도의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 공감이 어머니가 보고한 공감에 비하여 자녀의 내현적 자기에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공감을 측정하는 것이 부모가 보고하는 공감을 측정하는 것보다 부모의 사회적 선회도를 제거할 수 있고 자녀의 발달을 좀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을 부모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만 설문을 실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고 아버지에게는 설문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에게도 공감을 직접 측정하고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아버지-자녀 간 공감 지각 차이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아버지 공감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자녀 간 공감 지각 차이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변인으로 사회적 선회도와 방어기제 중 가장 미성숙한 단계인 자아도취 단계의 왜곡, 투사, 부정의 요인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자녀 간 공감의 지각 차이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어머니의 방어기제에도 보다 성숙한 단계의 방어기제가 있고 다른 성격변인들과의 관계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자녀 간 공감 차이와 관련하여 자녀의 변인을 포함시키지 못했는데, 추후연구에서는 자녀의 변인으로 방어유형과 성격특성, 인지발달 수준 등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러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부모-자녀 간 공감의 지각 차이의 배경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공감과 부모가 보고한 공감 중 어느 것이 더 자녀와의 관련을 잘 예측하는지 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내현적 자기에 및 외현적 자기에와의 관련을 비교하였다. 부모의 공감은 자녀의 정서, 인지,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론화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자기에에 미치는 영향만을 비교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감이 자녀의 정서, 인지, 행동 등 다양한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모 공감의 두 측정치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부모의 공감에 대한 두 측정치 간 비교는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로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 공감과 부모가 보고한 공감의 차이와 그 차이의 일부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두 공감 측정치 중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공감척도가 더 유용하리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공감척도를 부모용으로 수정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부모공감척도를 청소년 자녀용과 부모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공감을 측정하는 것과 부모가 보고하는 공감을 측정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부모 공감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 969-990.
- 김성일 (1996). 부모의 수용도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3, 67-105.
- 문승미 (2006).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과 유아의 문제행동 및 정서조절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의 자기평가와 정서특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 255-266.
- 박영숙 (1994). 심리평가의 실제. 하나의학사
- 오진아 (2007). 어머니의 성인애착 및 공감능력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근후, 김재은, 김정규, 박영숙 (1991). 이화방어기제 검사 표준화연구. 정신의학, 30,

- 582-592.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교육과학사.
- 이주일 (1988). 이분척도와 Likert형 7점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반응양식의 비교: 자기검색 척도와 자기의식 척도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남운 (2001a). 과민성 자기에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 193-216.
- 정남운 (2001b).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 221-237.
- 조용주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공감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7-177.
- 홍영미 (2007).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및 기질이 외현적, 내재적 자기에 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Barrett-Lennard, G. T. (1981) The empathy cycle: Refinement of a nuclear concep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91-100.
- Barnett, M., King, L., Howard, J., & Dino, G. (1980). Empathy in Young Children: Relation to parents' Empathy, Affection and Emphasis on the Feelings of 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243-244.
- Buri, J. R. (1989). Self-esteem and appraisal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ce Research*, 4, 33-49.
- Crowne, D. P., & Marlowe, D. (1960). A new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independent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4, 349-354.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De Paul, J., Perez-Albeniz, A., Guibert, M., Asla, N., & Ormaechea, A. (2008). Dispositional Empathy in Neglectful Mothers and Mothers at High Risk for Child Physical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3, 670-684.
- Feshbach, N. D. (1987). Parental empathy and child adjustment/ maladjustment. In N. Eisenberg & J. Strayer(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pp.271-29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shbach, N. D. (1995). Parent Empathy; A key Element in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Advances in Early Education and Day Care*, 7, 3-26.
- Feshbach, N. D., & Caskey, N. (1985). *A new scale for measuring parent empathy and partner empathy: Factorial structure, correlates and clinical discrimination*. Unpublished manuscript.
- G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8, 37-46.
- Harrington, R. G. (1987). The family as a context for adolescent assessment, In R. G. Harrington(Ed.), *Testing adolescent*, Kansas City, MS: Test Corporation of America, 24-50.

- Hartos, J. L., & Power, T. G. (1997). Mothers' Awareness of Their Early Adolescents' Stressors: Relation between Awareness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7*, 371-389.
- Hogan, R. (1969). Development of an empathy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307-316.
- Jacob, T., & Tennenbaum, D. L. (1988). *Family assessment: Rationale, methods, and future directions*. New York: Plenum.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 Kilpatrick, K. L. (2005). The Parental Empathy Measure: A New Approach to Assessing Child Maltreatment Risk.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5*, 608-620.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Letourneau, C. (1981). Empathy and stress: How they affect parental aggression. *Social Work, 26*, 383-389.
- Mehrabian, A., & Epstein, N.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525-543.
- Milner, J. S., Halsey, L. B., & Fultz, J. (1995). Empathic Responsiveness and Affective Reactivity to infant Stimuli in High and Low-Risk for Physical child Abuse Mothers, *Child Abuse & Neglect, 19*, 767-780.
- Paulson, S. E., & Sputa, C. L. (1996). Patterns of Parenting during Adolescence: Perceptions of Adolescents and Parents. *Adolescence, 31*, 369-381.
- Perez-Albeniz, A., De Paul, J. (2003). Dispositional empathy in high and low-risk parents for child physic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7*, 769-780.
- Perez-Albeniz, A., & De Paul, J. (2004). Gender differences in empathy in parents at high and low-risk of child physic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8*, 289-300.
-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 Raskin, R., & Hall, C. S. (1981).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 159-162.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90-902.
- Rice, F. P., & Dolgin, K. G. (2009). 청소년 심리학(정영숙, 신민섭, 이승연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전은 2008에 출판)
- Rogers, C. R.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95-103.
- Roh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Siegelman, M. (1965). Evaluation of Bronfenbrenner's questionnaire for children concerning parent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36*, 163-174.

- Soenens, B., Duriez, B., Vansteenkiste, M., & Goossens, L. (2007).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Empathy-Related Responding in Adolescence: The Role of Maternal Support. *Society and Social Psychology, 33*, 299-311.
- Strayer, M., & Roberts, W. (2004). Children's Ang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Empathy: Relations with parents' Empathy,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arenting Practices. *Social Development, 13*, 230-254.
- Thomas, D. L., Gecas, V., Weigert, A., & Rooney, E. (1974). *Family socialization and the adolescent*.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Trumpeter, N., Watson, P. J., O'leary, B. J., & Weathington, B. L. (2008). Self-Functioning and Perceived Parenting: Relations of Parental Empathy and Love Inconsistency with Narcissism, Depress,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9*, 51-71.
- Wiehe, V. R. (2003). Empathy and narcissism in a sample of child abuse perpetrators and a comparison sample of foster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7*, 541-555.
- Winnicott, D. W. (1965). *The maturational process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New York; International Univ. Press.
- Zahn-Waxer, C., Radke-Yarrow, M., & King, R. A. (1979). Child Rearing and Children's Prosocial Initiations toward Victims of Distress. *Child Development, 50*, 319-330.
- 원 고 접 수 일 : 2010. 3. 22
수정원고접수일 : 2010. 10. 27
게 재 결 정 일 : 2010. 11. 20

The study of difference between the maternal empathy perceived by children and the one responded by mothers themselves

Yong-Joo Jo

Catholic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ich method is more effective to measure parental empathy: reports of perceived parental empathy by adolescents and reports of parental empathy by parents.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dicated that five-factor solution represented the observed data well. Comparing scores from the two scales showed that those showing higher scores on mothers' reports on parental empathy than their children exhibited higher levels of social desirability and distortion factor and lower scores in projection than those showing no differences in reports by mothers and their adolescents. Scores of perceived empathy by children exhibited higher correlation with children's covert narcissism than scores of parental empathy reported by mothers. In conclusion, a report by adolescents is more effective than a report by parents to measure parental empathy.

Key words : *maternal empathy perceived by adolescents, empathy responded by mothers themselves, social desirability, defense mechanism, narcissism*